

05/21/23 케어 모임

1) 기도로 시작합니다.

2)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. (전도서 3:1-22)

- 1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.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.
- 2 태어날 때가 있고, 죽을 때가 있다. 심을 때가 있고, 뽑을 때가 있다.
- 3 죽일 때가 있고, 살릴 때가 있다. 허물 때가 있고, 세울 때가 있다.
- 4 울 때가 있고, 웃을 때가 있다. 통곡할 때가 있고, 기뻐 춤출 때가 있다.
- 5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, 모아들일 때가 있다. 꺾안을 때가 있고, 꺾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.
- 6 찾아나설 때가 있고, 포기할 때가 있다. 간직할 때가 있고, 버릴 때가 있다.
- 7 찢을 때가 있고, 꿰맬 때가 있다.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, 말할 때가 있다.
- 8 사랑할 때가 있고, 미워할 때가 있다.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,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.
- 9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,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탬 수 있겠는가?
- 10 이제 보니, 이 모든 것은,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.
- 11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. 더욱이,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. 그러나 사람은,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.
- 12 이제 나는 깨닫는다. 기쁘게 사는 것,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,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!
- 13 사람이 먹을 수 있고, 마실 수 있고,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,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.
- 14 이제 나는 알았다.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. 거기에다가는 보탬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.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.
- 15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,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.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.
- 16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.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,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.
- 17 나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. "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.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,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."
- 18 나는 또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. "하나님은,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.
- 19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.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.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.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,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나? 모든 것이 헛되다.
- 20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. 모두 흙에서 나와서, 흙으로 돌아간다.
- 21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,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?"
- 22 그리하여 나는, 사람에게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.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. 사람이 죽은 다음에,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 주겠는가?

인생이란 무엇인가? 전도서 설교시리즈

Part 3: 아름다운 타이밍이란

질문 1)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

질문 2) “나의 타이밍을 쫓기 보다,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.” 나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? 아니면 나의 타이밍 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?

3)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.